

정부는 축산분뇨 처리에 과감한 지원을 하라



신 태 식
(본회 경남도협의회장)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우리나라. 또한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기는데 힘겨웠던 우리나라가 60년에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국민소득은 날로 증대되어 보릿고개는 옛날 이야기거리가 되고, 국민의 생활은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윤택하게 되는 동안 우리의 금수강산은 폐결핵 환자처럼 아는듯 모르는듯 깊게 병들어 가고 있었다.

가난을 물리친 공장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독한 산업폐수, 국민의 소득 증대로 육류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다두사육으로 발전된 수많은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축분뇨, 국민의 생활향상으로 넘쳐 흐르는 생활쓰레기와 가정폐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난보다 더 무서운 환경오염의 주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의식 고취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농촌에서 땅태매고 개똥 주어비용으로 쓰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싱가폴처럼 무역과 관광수입으로 육류를 전량 수입해 먹는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우리나라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 축산이고 보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몇년동안 환경당국의 강력 단속으로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농가에서는 방지시설을 하여 가동하고 있으나, 오염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치에 도달하기 위한 완벽한 시설은 5천만원 이상 수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시설을 하더라도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규모나 소득성이 취약한 축산농가의 자력으로 완벽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집단화된 지역에서는 개인별 규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 전체에서 배출되는 양은 엄청난 양이므로 환경오염 방지에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며 시설비만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사육지역은 부락 전체를 단지화하여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가 심각한 도시부근의 축산농가는 이웃 일본처럼 환경문제가 별로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정부의 지원으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집단 이주시키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원유파동에 따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축분뇨가 메탄가스 생산원료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대체 에너지 생산과 환경오염 방지를 겸한 시설에도 적극 지원과 장려가 있어야 할 것

이다. 또 계속적인 화학비료 사용으로 날로 척박해 지는 농토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비료화 하는 시설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시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경제력이 취약한 축산농가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바,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시가 오늘처럼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농촌은 항상 희생만 당하며 경제적으로나 생활환경으로 보아 너무나 비참한 것이 현실이다.

모든 물가는 공산품과 부동산이 다 올려놓고 어른들이 하루먹는 쌀 값이 커피 한잔 값도 못되는데도,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값이 조금만 오르면 목소리 높은 도시민들에 편승하여 농축산물이 물가상승의 원흉인 것처럼 취급하여 마구잡이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당국의 처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농민말살시책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늦게나마 농촌을 발전시키겠다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시작도하기 전에 우루과이라운드에 인하여 자국의 농민 지원책도 봉쇄위기에 있는듯 하니 앞으로 농민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지 막연한 일이다.

그러나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특히 가축분뇨처리 시설책임은 축산농가에만 두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농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장의 공해방지시설에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축산분야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이 강력 단속만 하였으니, 농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번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너무나 미흡하며 무의미하다고 본다.

대상농가수에 비하여 사업량도 너무 적을뿐 아니라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간이분뇨처리시설에 2백만원만 지원(장기저리융자)한다면 눈가림 시설 밖에는 되지 않으며, 환경오염방지에는 별 효과가 없고 농가부채만 생기게 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사람들에게 썩은 수도물을 먹이지 않으려면 도시에 투자하는 예산을 농촌으로 돌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경제력이 약한 축산농가에만 책임지우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 질 때 도시와 농촌을 쾌적한 환경하에서 같이 살 수 있으며, 우리강산은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이 되어 세계에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 사람들에게 썩은 수도물을 먹이지 않으려면 도시에 투자하는 예산을 농촌으로 돌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도시와 농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며, 우리강산은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이 될 것이다.